

# 比較經營學에 관한 小考

金 元 銖

《目 次》	
I. 序 說	性과 類似性
1. 各國經營學의 意義와 그 限界	4. 比較研究의 理論前提와 比較研究의 展開方向
2. 經營分科學上의 比較研究의 動向	5. 比較經營學의 研究의 內容
II. 比較經營學의 研究의 展開方向	(1) 差異性 比較
1. 比較經營學의 性格과 그 研究對象	(2) 同一性 比較
2. 比較研究方法의 意義와 內容	6. 比較經營學의 意義와 그 展開方向
3. 比較研究의 바탕으로서의 相異	III. 結言—比較經營學의 意義와 體系化 方向

## I. 序 說

### 1. 各國經營學의 意義와 그 限界

經營學은 그 淵源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經營學, 즉 독일경영학과 미국경영학을 그 源流로 한다고 한다. 그 까닭은 양국에 있어서의 經營學의 研究成果가 가장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양, 특히 우리나라와 日本의 經營學 文獻上으로는 美國 및 獨逸 양국의 經營學은 물론 美國, 프랑스, 스위스, 日本, 이탈리아, 심지어는 체제를 달리하는 소련이나 中共 등의 各國의 經營學을 별도로 다루는 各國經營學에 대한 記述이 經營學의 發展이라는 명칭하에 散見되고 있다([3] 제 1 장 제 2 절, [4] 제 2 장). 이러한 各國經營學은 特定國의 經營學說을 탐구하는 것([14] p. 117)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相反되는 見解가 엇갈리고 있다(cf. [12] p. 52).

- ①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經營學
- ② 各國에 고유한 經營學
- ③ 各國의 企業경영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는 經營學

그런데 이 중에서 중시되어야 할 입장은 세번째의 입장인데 왜냐하면 經營學이 現實의 企業經營을 說明, 豫測, 理解, 나아가서 制御하는 것과 관련되는 知識體系라는 觀點에서

筆者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본다면 各國經營學은 마땅히 各國에 있어서의 企業經營에 관한 說明, 豫測, 理解와 制御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체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各國經營學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學問의 性格과 관련하여서는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相反되는 見解가 엇갈리고 있다(ibid., pp. 52-53).

### (1) 肯定說

이는 各國經營學을 國別 特殊理論으로 인식하려는 주장으로서 그 근거는 各國經營學이란 저마다 그 나라의 企業經營의 實踐的 要請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며 그 要請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 타당성도 各國의 企業經營에 한정되는 特殊理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見解이다. 사실상 學問的 後發國의 경우 經營學의 源流로 보는 美國 및 獨逸의 經營學을 마치 모든 나라에 普遍的으로 타당한 일반이론인 것처럼 導入·適用하려고 하는데서 自國의 企業經營의 實踐과는 遊離된 經營學이 전개되어 왔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國別 特殊理論으로서의 各國經營學(예; 韓國經營學, 日本經營學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各國의 企業經營을 土壤으로 하여 수립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그것은 현실의 기업경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상황의 分析과 解決에 有效하여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cf. [19] p. 11).

### (2) 否定說

이는 各國經營學을 資本主義社會의 企業經營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一般理論을 지향하는 一般經營學上的 各國別 學派로 보는 見解이다. 왜냐하면 各國의 經營學이 저마다 各國의 企業經營의 문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나 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은 資本主義社會에서의 企業經營에 관한 보편타당성이 있는 一般理論 내지 基本的 原理의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國經營學의 性格의 차이는 저마다 그 나라의 國民性을 반영하여 그 歷史的·傳統의인 思考慣習에 의해 영향을 받은 思考方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一般經營學의 學派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cf. [18] pp. 550-551).

經營學이 하나의 科學<sup>(1)</sup>으로서 성립하려면 그것은 各國의 기업경영에 보편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一般經營學 내지 一般理論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各國經營學에 대한 理解가 엇갈리는 것은 經營學의 基本的 性格에 대한 理解의 차이와 아울러 經營學의 一般(普遍)理論이 확립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영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各國의 企業經營은 저마다 一般성과 特殊性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므로 肯定說인

(1) 分科學(discipline)이 아닌 綜合科學으로서의 의미임.

國別 特殊理論을 취하는 입장은 각국의 기업경영의 特殊性을 강조하는 것이며, 否定說인 一般經營學의 各國學派라는 입장은 그것의 一般性을 중시하는 것이어서 저마다 그러한 面에서 一面性을 가지는 주장이기 때문이다(cf. [12] p.54). 그러므로 전자를 따르면 각국의 기업경영의 同一性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差異性만이 일반적으로 강조됨으로써 異質的인 各國經營學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각국의 企業經營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一般理論의 存立은 부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후자를 따르면 研究對象<sup>(2)</sup>의 차이에 따른 各國企業經營의 特殊性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단순한 관점 내지 접근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學派로 해소시켜버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cf. *ibid.*, p.53).

어떤 나라에 있어서건 經營學研究의 궁극적인 과제는 自國의 企業經營의 特質의 解明과 實踐의 指針의 제공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各國의 企業經營에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經營學의 一般理論, 즉 一般經營學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가장 典型的인 발전을 이룩한 各國經營學上의 諸所說을 綜合·統合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國의 企業經營의 相互比較를 통해 각국의 企業經營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同一性을 分析·抽出하여야만 하므로 이러한 面에서 各國의 企業經營에 대한 比較研究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比較經營學이 성립될 必然性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營學의 一般理論은 어디까지나 分析水準이 一般性 내지 普遍性을 진재로 하는 보다 높은 抽象의 次元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一般化는 歸納法에 의해 대표되듯이 각국의 기업경영의 特殊性 내지 差異性的의 捨象이나 경시에 의해 이루어지기 쉬운데 이는 平均値主義에 의한 단순·소박한 普遍論 내지 一般理論을 도출하게끔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cf. [5] pp.187-194).

따라서 比較研究는 一般性的의 分析·抽出로 그쳐서는 안되며 各國의 企業經營에 固有하게 인식되는 差異性을 분석하여 그 個別性을 인식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各國經營學은 各國의 企業經營의 現狀分析論으로서의 各國經營論<sup>(3)</sup>으로서도 展開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一般理論을 바탕으로 한 現狀分析論으로서의 各國經營論이어야만 하며 이를 통해 各國企業經營의 特質을 理論的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2) 主知主義的인 認識對象이 아니라 經驗對象임.

(3) 各國경영학과 各國경영론의 차이는 理論의 수준 및 범주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전자는 法則의 체계 및 상위범주이론으로 보고 후자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下位理論으로 봄(cf. [2] pp.84-86).

사실상 各國의 企業經營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입각하여 그 構造와 機能 및 이의 環境關聯성을 보다 구체적인 次元에서 理論적으로 해명하여 이에 대한 說明 및 豫測力을 갖춘 基礎理論과 未來의 企業行動에 규범적인 指針을 줄 수 있는 制御力이 있는 實踐理論을 제공할 實踐理論科學으로서의 各國經營學의 성립은 학문적 후발국의 경우에 특히 필요한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各國의 企業經營과 관련하여 知的 發見을 하고 이에 指針을 제공할 수 있는 特殊理論의 구축을 하려는 實證的 研究方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各國의 經營學의 研究가 아닌 企業經營에 대한 實證的 研究이다. 따라서 학문적 후발국의 경우에 하기 쉬운 선발국의 文獻을 중심으로 하는 文獻研究는 어느 의미에서 이러한 研究를 위한 準備의 내지 豫備의 연구과정이라 할 수 있다([21] pp. 83-84). 그러므로 國別 特殊理論으로서의 各國經營學의 타당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一國을 전제로 하는 企業經營의 特殊性的의 해명은 궁극적으로는 一般理論 내지 普遍理論의 구축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學問의 認識 내지 分析의 수준은 결코 저차원적인 特殊性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次元인 一般性 내지 普遍性的의 수준에서 보다 높은 說明·豫測·制御力을 갖는 理論構築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 2. 經營分科學上的 比較研究의 動向

앞에서 보았듯이 經營學의 基本的 性格에 대한 理解의 차이와 아울러 經營學의 一般理論 내지 一般經營學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比較研究의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經營學의 主流인 독일경영학과 미국경영학을 전제로 할 때 經營學이 어떠한 학문인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는 經濟學이나 社會學에 가까운 것에서 비롯하여 經營管理學에 가까운 것까지 여러가지의 見解가 있다. 또한, 독일경영학의 중심적 分科學인 經營經濟學의 경우에도 좀발트의인 표현을 빌리면 경영경제학은 달에 관한 것인지 지구에 관한 것인지 조차 불명확하며 슈마렌바흐는 방향상실증의 상태에 있다고 개탄하였을 정도로 혼란상태에 있었으며, 미국경영학의 중심적 分科學인 經營管理學의 경우에도 “經營管理理論의 密林”과 같은 學問的 狀況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20] 序文 p. iii). 따라서 經濟學이라는 명칭은 萬國 共通이며 그 課題나 性格도 國際的인데 反해 經營學은 그 명칭도 독일과 미국에서 서로 다르며 對象이나 方法도 一國的(national), 즉 各國的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經營學上的 比較研究는 사실상 國際比較에서 먼저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經營分科學인 經營管理學과 독일의 經營經濟學을 전제로 할 때<sup>(4)</sup>

(4) 比較經營學의 先驅的 文獻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1929년에 刊行된 슈란츠(Schranz, A.)의 독

比較經營學의 研究는 어떠한 研究動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독일의 경영경제학상으로 페리든(Perridon, L.)은 比較經營經濟學(die vergleichende Betriebswirtschaftslehre)에서 一國的(national)으로도, 또한 國際的(international)으로도 타당할 수 있는 經營經濟學의 一般理論의 수립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고([8] p.97), 미국의 경우에는 比較經營管理學(comparative management)으로서 1960년대 초로부터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 이의 公式的인 발단은 1959년의 하비슨과 마이어즈의 著書([27])로 지적되고 있다.

보드윈은 經營管理學上的 比較研究가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뒤늦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3] pp.201-202).

첫째, 經營管理分野에 있어서 미국이 優位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둘째, 企業(또는 企業史)에 대한 명백하고 광범한 無關心이 있었고 셋째, 적어도 제 2차대전 후까지 미국기업이 島國的 狀況(기업활동이 國內의 혹은 一國的)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기업도 해외에 진출하게 되고 소위 多國籍企業의 대두에서 볼 수 있듯이 다방면에 걸쳐 광범한 國際企業活動을 전개하게 됨에 따라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됨과 아울러 많은 연구자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일면에서 經營管理理論의 一般性 내지 普遍性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이와 아울러 比較研究方法에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는데 관심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가 전개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經營管理理論의 比較研究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1960년대 말에는 솔해머(Schollhammer, H.)의 “比較經營管理理論의 密林論”([33])의 주장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연구성과가 쌓여졌었다. 이 論文에서 솔해머는 “比較經營管理理論의 理論化的 작업은 아직도 경험적 조사에 有用한 도구를 만들기 위한 方法論的 戰略, 즉 모델이나 틀(frame-work) 또는 類型(typologies)을 개발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이를 통한 경험적 事實의 수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바로 비록 綜合化하기는 어려우나 풍부한 經驗的 情報를 얻는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方法論的 戰略의 모색에만 풍부한 에너지가 投入되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32] p.16).

또한 그는 비교경영관리론의 연구자의 상당수가 저마다 다른 分科學(discipline)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저마다 다른 다양한 研究關心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比較經營管理 그 자체가 복

---

일경영경제학에 관한 英文 概論書는 그 書名을 “The German Science Of Business Management”라 하여 양자를 대비시키고 있다(Schranz, A., “The German Science of Business Management; A Sketch of its Characteristics, 1929, (Jap. tr.) 譯者 序文 p.1).

잡하고 잘못 定立된 研究領域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연구 성과가 저마다의 學問的 關心과 관련이 있는 연구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저마다의 유리한 입장에 따라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하는 혼란상을 빚게하고 있다고도 지적하였다([32] pp.16-17).

그리하여 그는 比較經營管理에 대한 주요 理論的 接近方法을 검토하고 포괄적인 經營管理理論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히 實證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經驗的 調查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한 다음, 기존의 여러 연구의 基本的 指向性的 범주와 이에 따른 接近方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있다(cf. *ibid.*, pp. 17-39).

1. 相互關係 패턴 研究傾向

① 社會經濟的 接近方法

② 生態的 接近方法

③ 行動的 接近方法

2. 記述·分析의 研究傾向

① 單面的 接近方法

② 折衷的-經驗的 接近方法

③ 事例研究 接近方法

이에 이어 그는 비교경영관리론적 연구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망을 하고 이의 統合化와 綜合化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綜合化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시하였다(cf. *ibid.*, pp. 32-40).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1960년대 중반에 주로 組織構造設計 및 리더쉽 등과 같은 經營管理의 特定組織 내지 特定 국면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市場構造 및 生産技術 등과 같은 個別的 諸條件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立場에서 성립된 條件適合(應)的 經營管理論(*contingency of management*)이 國際比較와 관련하여 比較經營管理理論의 研究成果를 흡수·포괄함으로써 이와외의 관련하에 比較經營管理理論이 발전하여 왔다([11] p. 69).

이와 같은 比較經營管理理論의 研究動向은 1960년대의 쿤즈의 經營管理理論密林論의 주장 이후로 현저해진 새로운 傾向으로서 소위 密林打破(*path out of jungle*)를 시도하는 연구노력은 모두 經營管理에 대한 環境의 諸條件의 規定作用을 중시하고 종래 주장되어 왔던 경영관리 원칙의 보편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소위 普遍主義論者(*universalists*), 경영관리원칙 옹호론자(*advocates of "principles of management"*) 내지 경영관리과정학과(*management process school*)에 대한 비판자, 즉 特殊論者(*particularism*)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경영학상의 比較研究도 역시 그 나라의 主流學問에 따라 독일에서는 比較經營經濟論으로서, 미국에서는 比較經營管理論으로서 주로 國際比較를 중심으로 성립·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比較經營學은 과연 어떤 것이며 이의 效益과 課題는 무엇일까?

經營者意識의 國際比較를 행한 헤어 등은 비교경영관리론은 國際企業의 經營管理行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實踐的 意義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cf. [26] pp. 17-20).

① 自國의 경영관리자의 태도를 調査하여 상대적인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외국의 다른 경영풍토하에서 일하게 될 경영관리자를 파견하는 企業에 도움이 된다.

③ 文化圈을 넘어서서 경영관리자의 育成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사실상 比較經營學은 비단 經營者意識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에서 보듯이 각국의 企業經營이 가지고 있는 相對性 내지 特殊性과 아울러 이들 사이의 同質性 내지 一般性을 파악하여 그 企業經營을 설명, 예측, 이해, 제어할 수 있는 理論의 形成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比較經營學의 研究成果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cf. [7] pp. 49-50).

첫째, 각국에 있어서의 企業, 기업활동 및 경영관리활동의 유사성, 또한 이와 환경 및 경영성과와의 관계의 유사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企業經營面에서의 一般法則 내지 原則의 수립이 가능하다.

둘째, 企業 및 經營管理 등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條件適合(應)的인 適應이 가능하다.

셋째, 경영관리지식의 移轉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比較經營學의 수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課題가 달성되어야만 할 것인가?

네간디와 프라스드는 國際比較經營管理의 課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cf. [31] pp. 4-9).

첫째는 比較經營管理論이 무엇인가(What is comparative management?)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들은 보다 광범한 國際的인 視點에서 여러가지 假說을 검증하고 또한 異種文化 또는 국가에 經營管理方式을 移轉하는 경우의 可否의 諸事情을 검토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이의 研究方法로서의 有用性(Is it useful as a research method?)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들은 모든 연구란 원래 比較的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國際比較的의 조사방법으로서 고려할 때에는 이를 그렇게 손쉽게 생각할 수는 없으며 比較란 조사라고 하는 視點 이상의 方法的인 概念이라 하고 比較研究에서 도출되는 諸結果는 어떤 것이건 經營管理의 적절한 理解를 深化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세째는 그것이 理論的 效用을 가지는가(Does it have theoretical utility?)하는 문제인데 그들은 理論이란 단순한 說明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므로 比較研究에서 얻은 假說은 調查對象國이 어느 나라이건 적절한 企業經營活動에 도움이 되는 指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네째는 그것이 實踐的인 有用性을 가지는가? (Does it have practical usefulness?)하는 문제인데 그들은 이를 긍정하면서 先進國의 經營管理知識(know-how)을 開發途上國에 도입할 때의 장애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比較經營學이 제대로 성립할 수 있으려면 比較經營學의 성격이 명확화되고 比較에 의해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비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체가 理論의 成立・發展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實踐的인 有用性을 가지는 방향으로 研究가 진행되어야 함을 示唆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Ⅱ. 比較經營學의 研究의 展開方向

이상에서 본 바에 따를 때 比較經營學의 研究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 1. 比較經營學의 性格과 그 研究對象

그렇다면 比較經營學은 어떠한 性格을 가지는 經營學의 分科學인가? 그것은 比較經營經濟學인가? 아니면 比較經營管理學인가?

모든 學問은 고유의 연구대상을 가지기 마련이다. 經營學의 연구대상은 協同的 生産實體로서의 性格을 가지는 開放시스템으로서의 企業組織體이다. 따라서 이는 環境과의 相互作用下에 企業目的을 실현하고자 기업기능을 수행하는 目的 構成體로서 이의 構造와 機能은 <圖 1>과 같다(cf. [2] pp. 433-438).

따라서 比較經營學을 앞서 본 바와 같은 經營學을 전제로 이에 比較研究方法을 적용하여 인식한 지식체계로 본다면 本稿에서 정립되는 比較經營學(comparative business management)은 앞서 본 比較經營經濟學이나 比較經營管理論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지식체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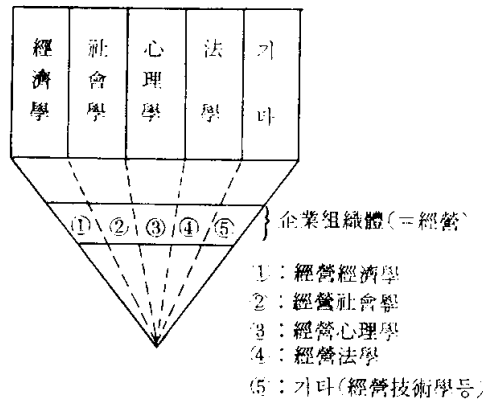


〈圖 1〉 企業組織體의 構造와 機能  
(企業)

企 業 組 織 體	組 織 構 造	=人的構造 社會(人間) 시스템 =組織構造 (人的 資源要素) + (物的 資源要素 { 價值的) 物財的)	=結合(統合)的 機能 經營管理活動= { 調 査 計 劃 員 充 指 導 指 統 制	企 業 機 能 (廣 義)
		人間-機械시스템 =物的·技術的 構造	事業活動(狹義의 企業機能) · 連結的 機能(事務, 情報, 組織, 會計, 統計) · 要素的 機能(人事, 財務) · 過程的(實體的) 機能(購買, 生産, 마케팅)	

(資料 : [2] p. 436에 의함)

〈圖 2〉 經營分科學의 體系  
分科學



(cf. [14] p. 471)

된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는 比較經營學의 下位體系가 된다. 왜냐하면 比較經營管理學은 〈圖 1〉의 廣義의 企業機能중의 結合(統合)的 機能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比較經營經濟學은 〈圖 2〉에서 보듯이 그것은 경제학적 觀點에서 다루는 比較經營學의 하나의 分科學으로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特정의 分科學, 즉 경제학에 바탕을 둔 經營經濟學的 比較研究는 部分的 기여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cf. [16] pp. 23-27, [17] p. 43). 왜냐하면 “중래 經營管理에 관한 比較연구의 상당한 부분은 경제학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국제比較관찰의 결과 인식된 차이를 經濟的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에서는 經營管理方式이나 戰略의 차이를 무엇보다도 工業化의 수준의 차이와 관련지우려는 강한 論調가 나타난다. 대다수는 전후의 關係에서 文化的 차이가 있다는 事實에 關係 언급을 할 뿐 文化的 要因은 무시해

머리기 때문이다”라고 헤어 등은 지적하면서 그들의 經營者意識의 國際比較의 결과는 공업화 단계를 전제로 도출된 어떠한 가설과도 잘 맞지 않으며 예컨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및 이탈리아의 一群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및 서독의 一群은 공업화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관련이 없으나 文化的인 유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 群은 저마다 同質的이다”(cf. [26] pp. 16-17)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比較經營經濟學的 研究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比較經營學은 앞서 본 바 經營學의 研究對象인 開放시스템으로서의 協同的 生産實體로서의 企業組織體의 構造와 機能 및 이와 관련되는 環境的 諸要因과의 상호관련성 등을 比較研究의 방법에 의해 인식하여 형성한 知識體系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比較의 대상을 各國의 企業經營을 전제로 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는 各國에서 전개되고 있는 經營學이나 혹은 各國에 고유한 經營學을 比較研究하는 것과는 다르다. 종래 日本에서는 일반적으로 比較經營學을 各國의 經營學說을 비교연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9] p. 203) 혹은 經營學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을 뜻하였다([14] p. 117). 따라서 學者에 따라서는 “經營學의 比較研究”를 比較經營學, “(企業)經營을 비교연구하는 學” 또는 原語 그대로 comparative management로 부르거나 혹은 이를 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經營學說의 비교연구와 아울러 企業經營實態의 비교연구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9] p. 203). 이러한 구분은 比較經營史(比較企業史)에 대한 比較經營學史에 對應하는 구분과 같은 것인데 企業經營에 대한 實證的 比較研究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比較經營(管理)論이라 하고 반면에 經營學文獻 比較研究에 중점을 두는 연구를 협의의 比較經營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比較經營(管理)論의 연구는 國際比較를 주로 하므로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國際比較經營(管理)論으로 보아 “美·英·獨·佛·日 등 先進資本主義諸國을 서로 비교하거나 혹은 이들 先進國과 低開發國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企業經營의 특수성이나 先進性 내지 後進性を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資本主義國과 社會主義國의 比較도 이루어지고 있다”([6] p. 1)고 하여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國際經營比較論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14]) 이는 國際經營의 比較論(international management comparison)으로 오해되기 쉬워 比較經營論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왜냐하면 國際經營論(學)이란 “進出國에 있어서의 國際企業의 活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것으로서 國家的인 境界를 넘어선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財産 및 자금의 흐름을 效率적으로 관리하려는 궁극적인 意圖와 관련이 있는 經營管理의 문제를 다루는 것”([29] p. 109)으로서 比較經營論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2. 比較研究方法의 意義와 內容

보드윈은 比較研究方法(comparative approach)<sup>(5)</sup>이란 “복수의 현상 사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식별·측정·설명하는 체계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① 比較對象(compared what) ② 比較基準(compared as to what) 및 ③ 比較目的(compared for what)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고 있다(cf. [24] pp. 261-267).

① 時間的 比較(temporal comparison)—시간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現象間的 유사성 또는 차이성을 명확화하려는 것으로서 歷史的 比較가 이에 해당하는데 比較經營學史 및 比較經營史(또는 企業)가 이에 해당한다.

② 空間的 比較(spatial comparison)—空間이 다름에 따라 생기는 現象間的 유사성이나 차이성을 식별하려는 것으로서 地理的 比較라고도 하는데 상이한 文化圈이나 지역, 국가 또는 도시에서 생기는 현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이 文化橫斷(貫流)的 내지 交錯文化的(cross cultural) 比較이다.

③ 部門間 比較(sectoral comparison)—特定時點의 特定の 場所에 있어서의 部門現象 상호간에 볼 수 있는 유사성이나 차이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예컨대 經營(또는 企業)比較論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比較란 普遍的인 것으로 보이나 반면 特定の인 現象을 근거로 하여 暗默的 또는 公開的으로 현상을 分類·認識하는 것이다([14] p. 106). 사실상 比較研究過程에서는 현상을 普遍的인 것(universal), 關聯的인 것(related) 및 獨自的인 것(unique)의 3 가지의 범주로 差別化(differentiate)하여 인식을 하게 된다([28] p. 10). 따라서 比較란 바로 差別化이며 이는 同種的인 것으로 관찰되기 쉬운 여러 현상 중에서 “普遍的 要素”, “限定的인 普遍的 要素” 및 “特殊差異的 要素”로, 또는 各國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同種類範疇”와 一國의 歷史的·環境的 狀況에 귀속되는 “特殊性範疇”로 분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 p. 107).

그러므로 比較는 分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비교는 분석을, 반면에 분석은 비교를 서로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오늘날 近代科學의 특징적 방법인 分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分析은 比較를 통해 綜合에 이를 수 있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20] p. 242). 왜냐하면 分類란 바로 여러 대상의 분석된 諸屬性의 유사성(동일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分類體系上的 어떤 위치(範疇)를 모색하는 일종의 分析的 作業이기 때문이다([22],

(5) 接近方法과의 異同에 대해서는 [12] 제 7 장 제 1 절 참조, 단 本稿에서는 同意語로 쓴다.

[14] p. 317).

이처럼 比較는 연구대상에 관한 分類이며 差別化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14] p. 107).

- ① 概念的 틀(conceptual frame-work)의 확정
- ② 作業變數(operating variables)의 측정
- ③ 分類·類型化(classification and typologies)의 실시

그런데 比較研究를 하는 데에는 두가지의 입장이 있다(cf. [20] pp. 3-8). 예컨대 연구대상인 여러 현상사이의 공통성 내지 보편성을 밝히려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을 처음부터 비교적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현상에 한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들 유사한 여러 현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普遍性, 나아가서 그와 같은 보편성, 공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점을 밝히려는데 주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유형의 비교연구는 理論的 研究 또는 計量的 實證研究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들 제현상에 공통적인 普遍性, 規則性, 法則性을 밝히려는 입장에서 하는 비교연구를 협의의 比較研究(comparative study)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처음부터 현저히 다르다고 생각되는 복수의 現象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여러 현상을 서로 비교·대조함으로써 오히려 個個의 현상이 가지는 현저한 個性, 그 特質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는 社會的 諸現象이 가지는 歷史的 個性의 追求를 지향하는 歷史學 등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히 다르게 보이는 여러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서로 比較·對照함으로써 個個의 현상이 가지는 個性 내지 特質을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對比(比較對照)研究(contrasting study)로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比較研究와 比較對照研究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예컨대 A와 B를 비교한다고 할 때 이에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cf. [15] pp. 56-58).

- ① 比較 : compare A with B
- ② 對比(比較對照) : contrast A with B

그런데 첫째의 의미의 比較는 A/B(比), A-B(較)와 같이 A와 B를 量定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差를 구하든지 比를 구하든지 B를 尺度(=分母)로 하여 A를 測定하는 것이므로 항상 동일한 尺度에 입각하여 A와 B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복수의 事象을 數量化하거나 順序化하여 파악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후자, 즉 對比는 A와 B를 質的으로 비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尺度에 입각

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前者는 A와 B의 長短이나 우열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는 데 대해 후자는 A와 B의 차이를 연구자 자신이 理解(understand)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므로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比較의 경우에는 A, B, C와 같은 세 가지(또는 그 이상)의 것을 동일한 尺度를 기준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의미가 있으나 對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A:B, A:C, B:C의 對比에 쓰이는 각각의 兩極尺度軸은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만약 A:B의 對比를 가능하게 하는 尺度軸에 C를 추가하여 고찰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C가 A 또는 B와 대체로 同質的인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이 볼 때 比較란 同質性的의 差異의 비교로 볼 수 있으며 對比란 異質性的의 差異의 비교, 즉 個性的의 特徵과 그 原因의 探索으로 볼 수 있다.

### 3. 比較研究의 바탕으로서의 相異性和 類似性

그렇다면 比較研究의 바탕이 되는 相異性和 類似性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것일까? 헤어 등은 14個國에서 3,641人을 대상으로 실시한 古典的인 管理者의 意識・態度調査에서 相異性和 類似性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cf. [26] pp-12). 그리하여 類似性에 따라 13個國을 다음과 같은 4個群으로 나누고 있다(ibid, p. 14).

- ① 北歐諸國組(노르웨이, 덴마크, 西獨, 스웨덴)
- ② 南歐諸國組(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 ③ 英・美國組(영국, 미국)
- ④ 開發途上國組(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 14個國중 일본만은 어떤 集群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워서 그 특성을 獨自性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연구대상의 비교특성 중 相異性은 학자에 따라 特殊性(difference) 또는 特殊文化性(culture-specific)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cf. [13] p. 5, p. 7). 특수성이란 現象을 말하는데 이는 곧 특정대상에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日本的經營의 경우에는 終身雇傭이나 年功序列 및 企業內組織 등이 그 특수성으로 지적되고 있다(ibid, p. 5).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을 생기게 한 原因을 파악하기 위한 過程이나 “실마리”는 歸因性(attribu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現象, 즉 특수성이나 이러한 특수성의 원인이 되는 普遍性 내지 文化恒常性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예컨대 앞서 본 日本的經營의 특수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이루어지는 家族, 村落, 集團의 연구는 이러한 歸因性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이는 屬性 내지 特

性으로 불리워지는 文化橫斷的 特性인데 日本的 經營의 特殊性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歸因으로 推論되고 있다(ibid., pp.5-6).

① 繼續特性—「家(이에)」 컨셉트(예컨대 그것은 實在하지 않는 이미지로서의 擬制家族의 컨셉트라 하더라도)의 未來의 維持=定着의 組織觀

② 不平等特性—「年功序列」의 構造的 維持=年功序列만을 가장 平等하다고 보는 均衡觀

③ 合理特性—組織과 個人的 生態의 維持=切捨·用途分別型的 狀況의 合理性的 殘留觀

④ 歸屬特性—우리들이라는 共同體意識의 全體的 維持=歸屬의 矜持感의 창조와 유지의 孤島觀

⑤ 貧困特性—태어날 때부터의 個人的 勤勉性的 過當競爭의 維持=四季節의 변화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人口過剩의 資源觀

이에 대해서 類似性(similarity)의 개념은 普遍性, 一般性, 超文化性(culture-free)이라고도 하는데 이처럼 特殊를 包攝하는 普遍이나 文化特殊性을 초극하는 認識으로서의 超文化性을 설명하는 基幹概念(key concept)으로서 文化恒常性(culture constant)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文化的 核心的 性格(core character of culture)으로서 이에 대한 定義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ibid., p.5).

① 內部環境의 定常性(homeostasis)에 의한 經營體(個人主體, 組織主體, 地域主體)의 유지

② 經營體의 恒常狀態, 즉 반드시 固定的인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安定化되어 있는 상태

③ 自律的인 制御 및 進化라는 두 가지의 중심적인 기능에 의해 뒷받침되는 調整作用

이 개념은 文化橫斷的 研究 내지 交錯文化的 研究에 의한 特殊理論을 충분히 다룬 연후에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普遍理論형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恒常性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生理學的 觀點에서 인식되는 恒常性的 유지를 나타내는 定常(homeostasis)型和 人類學的 觀點에서 인식되는 親近의 情을 반영하는 親近(intimacy)型이 그것이다.

따라서 特殊性으로서의 現象은 歸因을 매개로 하여 文化橫斷的 特性 내지 共通性이 인식되고 나아가서는 文化恒常性的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가 解明될 필요가 있다.

#### 4. 比較研究의 理論前提와 比較研究의 展開方向

比較研究를 전개할 때 依據하는 理論前提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cf. ibid., pp. 7-14).

① 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

이는 특정의 국가의 文化恒常성이 보다 普遍的이라는 假說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各國經營學의 하나인 특정국의 經營學이 반드시 그 나라에 固有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가지는 特性은 국제비교를 통해 보다 收斂性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의 共通的인 假說은 “人間은 모두 같다”라는 기본적인 인식과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출발한다. 이의 視座는 特殊를 긍정하면서도 脫文化的 내지 超文化的인 研究方向을 가지며 企業內의 인간에 의한 親和와 社會·文化的 普遍的 機能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恒常성은 個人수준에서는 親近의 情에 바탕을 두는 “人間恒常性”, 組織體수준에서는 “組織恒常性”이 된다.

따라서 이는 超文化性에 의해 示唆되는 普遍論理를 추구하려는 입장이다.

## ② 土着理論(indigenous theory)

이는 文化特殊性을 전제로 하여 環境이 다르면 企業經營 내지 文化도 달라진다는 입장에서 特殊理論을 인식하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理論前提를 전제로 하여보면 앞서 본 두 가지 比較類型중 比較研究는 전자에, 반면 對比研究는 후자에 對應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比較經營學을 經營學說의 比較研究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어떤 방향으로 比較研究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가?

比較研究方法은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가지 분류기준, 예컨대 比較研究主體, 比較目的 내지 比較觀點 및 比較對象 등을 分類基準으로 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cf. [6] pp. 243-245).

첫째, 比較目的 내지 比較觀點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同一性(類似性) 比較와 相異性(特殊性 또는 個性) 比較로 나눈다. 사회과학이 한편에서는 社會現象의 法則性的의 발견을 지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獨自性이나 特殊性 및 歷史性的의 이해와 그 調和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현상사이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과 차이성 내지 不同性을 밝히려는 것은 科學的 研究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았듯이 比較研究와 對比研究의 두 가지가 있는데 比較經營學을 學說 내지 理論의 비교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둘째, 比較對象을 전제로 하면 國(際)的 또는 國別 比較와 國別이라는 限定을 배제한 學派 내지 學說別 比較로 나눌 수 있다. 經營學은 各國經營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一國性(nationalism)이 강한 學問이므로 國際的 比較는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國際的 比較에서는 먼저 國別比較가 이루어져야만 하나 體制別 比較와 아울러 發展段階別 比較도 필요하다. 따라서 各國經營學의 比較는 資本主義經營學과 社會主義經營學의 比較는 물론 동일체제내에서의 先進國과 後進國 또는 發展國과 發展途上國의 經營學의 比較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經營學의 발전은 學派 내지 學說의 多樣化를 통해 이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多様な 학설을 學說的 比較를 통해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학설의 특색과 형성의 근거를 명확화하여 분류하고 經營學體系上的 地位와 意義를 밝혀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 학설의 相對性을 분석·비교함으로써 그 한계성을 밝히고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絕對的인 經營學의 수립을 위한 摸索을 하려면 이러한 學說別 比較는 그 前提的인 작업이 되기 때문이며 사실상 比較研究의 의의는 비교되는 연구대상의 相對性만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相對性의 올바른 理解와 超克을 통해 이의 綜合으로서의 一般經營學의 수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비교경영학적 연구는 궁극적으로 批判的 研究方法에 입각한 經營學의 批判的 研究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

#### 5. 比較經營學의 研究의 內容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比較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 (1) 差異性比較

經營學史의 면에서 볼 때 經營學의 두가지 源流 중 獨逸經營學은 商業學의 科學方法論에 입각한 經營經濟學化에 의해 성립되었는데 그 까닭은 國民經濟學의 입장에서 상업학의 후신인 私經濟學이나 企業經濟學 등은 營利學(profitslehre)로서의 無用有害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소위 私經濟學論爭을 거쳐 중립적인 經濟性을 목표로 하는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으로서의 獨自性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는 資本 내지 價值循環論에 중점을 두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경영학은 산업혁명을 거쳐 미국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現場管理라는 실천적 필요성에서 工場管理論 내지 生産管理論으로서 성립된 經營管理(management)의 學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영학의 경우에는 制約을 받을 만한 學問的 傳統도 없었으므로 實用主義的으로 經營實踐上的 需要에 따라 經驗을 바탕으로 자유로이 성립될 수 있었다(cf. [20] pp. 248-249).

따라서 學問(科學)理論(또는 科學哲學) 면에서 비교해 볼 때, 앞서 본 미국 및 독일의 經營學史의 인 차이는 바로 學問理論(科學理論)上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독일에서는 學問理論이 중시되어 왔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거기서는 企業經營에 대한 연구인 經營學은 성립되었으나 經營學에 대한 연구인 經營學本質論 비슷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經營學이 哲學 특히 認識論이나 科學論에서 자유롭고 또한 獨立的일 수는 없었으며 독일經營學上的 方法論爭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科學理論이나 그 바탕에 있는 哲學과 관련되는 論爭이었다. 따라서 독일경영학의 중심인 經營經濟學의 경우에도 그것이 依據하는 철학이나 科學理論이 어떠한에 따라 여러가지 見解가 파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經營經濟學의 성격(理論科學인가? 應用내지 實踐科學인가?), 그 對象(企業인가? 經營인가? 經營經濟인가? 價值循環인가? 資本循環인가?) 및 그 方法(對象選擇의 원리, 觀點 및 分析의 方法) 등이 論爭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경영학이 그 바탕으로 하는 이념은 實用主義(pragmatism)와 社會進化論(social Darwinism)이라 할 수 있다. 듀이(Dewey, J.)의 實用主義 즉 道具主義(instrumentalism)는 인간의 지식이란 원래 인간이 환경에 適應하기 위한 규칙이며 概念이나 眞理는 그 生活過程에서의 모순이나 장애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것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라 다른 道具나 마찬가지로 生活經驗속에서 부단히 試練되고 개선되어 理論과 實踐의 통일이 반복되어가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cf. [25] p. 155ff). 그러므로 미국의 경영학은 현실의 經營管理의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有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目的은 미국에서의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學問理論이야 어떻든 어디까지나 現實의 經營管理實踐의 成果(performance)만을 문제로 삼는다.

그러므로 學問理論을 전제로 할 때 양국의 경영학은 바로 등을 맞대고 한 쪽은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데 대해 다른 한 쪽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경영학의 行動性, 冒險性, 創造性과 독일경영학의 思想性, 論理整合性 및 體系性은 아주 대조적이다(cf. [20] pp. 249-251).

다음 미국경영학의 대표적인 經營管理學說과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經營經濟學說을 각각 經濟學說 및 管理學說로 보아 學說別로 비교해 볼 때 양학설은 對象 과학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經濟學說이란 經營學의 對象을 經濟的 觀點에서 인식되는 經營으로 보고 經營學은 廣義의 經濟學의 體系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見解를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學說은 經營을 어떠한 經濟面에 치중하여 보느냐에 따라 私經濟學說, 經營經濟學說, 經營者經濟學說 및 個別資本學說 등 여러가지 학설로 분화되며 學問性格上으로도 理論科學說과 應用 내지 實踐科學說로 나누어진다. 독일경영학상의 第1次 및 第3次 方法論爭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이러한 經濟學說은 다시 經營學의 自律性과의 관련하에 否定說과 肯定說로 나누어진다. 第2次 方法論爭은 바로 이와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전자는 경영학이란 經濟學을 떠나서는 독자적인 對象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는 經濟學의 一部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후자는 독자적인 對象이 있다고 인식하는 주장이다(cf. *ibid.*, pp. 253-254).

이에 대해 管理學說이란 企業經營內에서 수행되는 管理活動을 中核的인 機能으로 보아 경영학의 대상을 管理라는 觀點에서 파악하려는 見解의 총칭이다. 이러한 學說의 중심이 되는 학파는 흔히 傳統學派, 古典學派 또는 普遍主義學派로 불리워지는 管理過程學派인데 이는 經營管理를 企業뿐만 아니라 行政이나 기타 어떠한 조직체이건 그 집단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는 과정(process of getting things done by people)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파는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여 概念的 틀을 만들고 그 과정의 기초가 되는 原理를 밝힘으로써 經營管理理論을 수립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는 經營管理學을 實踐을 개선할 수 있도록 經驗을 要約하여 編製하는 방법으로 보게 된다(cf. [30] p.3). 이 학파는 그 성격상 管理機能學派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機能은 과정을 포함하며 과정은 바로 기능의 過程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두 學說 중 경제학설은 客觀性 내지 客體性을 중시하는데 대해 관리학설은 主觀性 내지 主體性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후자는 經營者의 行動 내지 機能의 과정을 主體的 내지 主觀的으로 內觀하는 입장을 취하나 전자는 경영자의 行動의 결과 내지 성과를 外觀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설에 있어서는 經營管理行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經營者 行動의 意識이나 目的을 넘어선 客觀的 事實로서의 資本이나 價値의 흐름이나 움직임의 必然性 내지 法則性을 문제삼으므로 이는 主觀的인 管理過程이 아닌 客觀的이고 客體的인 資本過程 내지 資本變動을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전형적인 經濟學說은 客觀的 法則性을 문제로 삼으므로 당연히 純粹理論科學이 되기 쉬우. 이 중 應用 내지 實踐科學을 주장하는 학파는 目的意識的인 經營行動을 다루므로 實踐科學 내지 應用科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管理學說에의 接近 내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가지 學說에 대립되는 組織學說과 비교해 볼 때 經營學說 및 管理學說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cf. [16] 序文 pp.1-3).

종래의 경영학자는 學問的 視野가 아주 좁아서 대체로 경영학의 대상의 一側面만을 중심으로 이를 抽象的으로 다루어 왔다. 이처럼 經營學의 對象의 한 측면만을 연구한다는 것은 다른 側面을 捨象 내지 輕視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불완전한 연구로 그치기 쉽다. 사실상 경영학의 대상의 각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인데도 학자들의 學問的 視野가 대체로 좁아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 및 관리의 양학설은 모두 分析的, 抽象的, 一面的인 성격을 가져 경영학

의 對象으로서의 企業(=經營)이라는 存在實體에 대한 綜合的인 說明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事實상 經濟學說은 대체로 릿켈트, 웨비 및 아몬 등의 科學方法論의 傳統을 따르는데 이는 과학의 연구대상이란 우리들의 經驗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無限定的이며 살펴보기 어려운 多樣性을 가진 經驗對象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대상을 일정한 관점에서 가공하여 통일적인 思考對象으로서 간접적으로 구성된 認識對象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經營事象의 經濟的 側面이 된다. 이에 대해 管理學說은 經濟的 側面 등은 捨象하고 管理的 側面만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組織學說은 대상 그 자체라는 存在가 가지는 綜合性, 全體性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면에서 앞의 양 학설과 조직학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cf. [20] pp. 260-270).

(2) 同一性比較

그렇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영학과 앞서 본 세 가지 學說 즉 經濟學說, 管理學說 및 組織學說 등은 저마다 差異性만 있고 共通性 내지 同一性은 없는 것일까?

미국 및 독일의 경영학은 저마다 그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저마다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있어서의 文化的 태두리에 따른 特色을 가지고 있으므로 國際的으로 비교할 때 거기엔 미국적 내지 독일적이라는 特質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저한 對照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소위 歷史的 必然으로서 누구이건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學問이 國籍을 가진다는 것은 歷史를 별도로 한다면 科學으로서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社會科學의 경우에도 時代를 넘어설 수는 없다하더라도 國境은 넘어서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경영학도 미국경영학 및 독일경영학과 같은 國家에 따른 特殊性은 인정하되 科學으로서의 이를 超克하는 一般經營學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經營學理論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比較經營學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相異性의 비교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넘어서는 方法을 발견하여야만 한다(ibid., p. 252). 만약 그렇지 않고 各國經營學의 特殊性이나 差異性만 강조한다면 이는 歷史的 相對主義에 입각한 土着性의 인식으로 그쳐버려 이의 超克을 통한 統一的인 一般 내지 普遍理論을 형성할 수는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各國마다 다른 經營學의 成立을 是認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經營風土라는 土壤이 다른 異文化圈에서 형성된 各國經營學의 獨自性을 인정하되 이를 토대로 이들 各國經營學에 공동적으로 존재하는 共通性 내지 土着性을 超克하는 同一性, 一般性 내지 普遍性을 바탕으로 하는 一般經營學의 수립을 지향하려면 比較

經營學의 研究는 어떤 方向으로 전개되어야만 할 것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相異性比較를 하여보면 독일경영학과 미국경영학 또한 經濟學說과 管理學說 및 이 두 학설과 組織學說은 兩極的 對立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세 학설의 차이는 결국 觀點의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학설은 企業經營의 현실을 어디까지나 分析的으로 다루어 대상을 要素的·個別的으로 인식하여 合理主義的으로 생각함으로써 現實遊離的인(wirklichkeitsferne) 입장에 서는데 대해 조직학설은 企業經營存在의 현실에 부응하여 어디까지나 綜合的으로——分析的임과 동시에 종합적으로——보고 合理主義와 非合理主義와의 統一로 생각함으로써 現實近接的인(wirklichkeitsnähe) 입장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組織學說은 近代的 性格을 가지는 經濟學說 및 管理學說에 대해 現代的 性格을 가지는 학설이라 할 수 있는데([20] p.268) 왜냐하면 조직학설이 依據하는 綜合論理는 近代的 分析論理에 對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많은 학자들이 人間觀, 組織觀 및 企業觀 등과 관련하여 古典學派 내지 傳統學派를 비판하여 새로운 見解를 주장한 것은 바로 근대적인 分析論理에 따른 연구성과의 一面性에 대한 綜合的 認識의 契機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經濟人모델에 대한 社會人모델, X理論과 Y理論, 未成熟理論과 成熟理論, 有機體觀, 機械觀과 社會시스템觀, 靜的 構造說과 動的 構造說, 閉鎖시스템과 開放시스템觀, 權威主義 내지 權威上位說, 合理主義에 대한 非合理主義, 全體主義에 대한 民主主義나 人間中心主義(humanism) 등의 주장은 모두 부분적이거나 分析論理에 입각하는 經營學의 近代的 性格을 綜合論理에 입각하는 現代的 性格을 가진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努力의 一端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綜合論理를 바탕으로 하는 組織學說의 歷史的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ibid., p.268).

그렇다면 이와 같은 相異性을 가지는 各學說의 同一性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同一性比較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相異性的의 바탕에 있는 同一性을 비교·과약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그와 같은 同一性的의 基礎는 實在하는 企業經營의 現實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相異性比較와 同一性比較는 같은 比較이나 명확히 比較의 觀點이 다르다. 왜냐하면 相異한 것이 동시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相異性이라는 觀點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同一性的의 근거를 探索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 가지의 비교는 觀點이나 認識方法, 심지어는 次元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一性比較는 어느 쪽이나 하면 批判에 가까우며 이는 적어도 比較로부터 批判으로 이르는 통로 내지 그 한 단계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6. 比較經營學의 意義와 그 展開方向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比較經營學은 그 展開過程에서 크게 두 가지의 研究方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各國經營學의 風土性, 歷史性 내지 土着性을 중심으로 差異性, 特殊性을 인식함으로써 各國經營學의 相對性을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差別化를 하는 방향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저마다 自國의 企業經營上의 問題의 해결을 위해 經營學의 연구가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 그 特質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各國經營學의 이와 같은 相對的인 特質의 理解와 歷史的 相對性의 인식만으로는 앞으로의 經營學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는 없다. 따라서 比較研究는 결국 相對性比較에 그치지 않고 同一性比較를 통해 이러한 相對性이 극복함으로써 一般理論으로서의 經營學을 수립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同一性比較研究는 앞에서 보았듯이 批判的 研究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극적이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自覺的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比較經營學이 궁극적으로 未來指向的인 觀點에서 經營學研究를 指向하는 한, 보다 적극적이며 자각적인 批判的 研究方法를 통해 比較研究에 의해 파악한 여러 學說의 論據를 相對的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限界와 나아가서 그것을 超克하여야만 한다([20] pp. 280-281). 比較研究方法이란 既存의 學說의 比較이므로 學說의 異同은 밝힐 수 있으나 바로 이의 優劣을 判定하거나 이에서 새로운 이론, 특히 綜合 내지 統一理論을 형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理論이나 統一理論은 諸學說의 차이와 對立을 超克하는 理論의 創造에 의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學說을 참되게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곧 比較的 研究方法를 넘어서는 批判的 研究方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批判的 研究方法이란 종래의 학설의 근거를 잃게 함과 아울러 새로운 이론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批判은 일면에서는 파괴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건설이며 창조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쿤이 말하는 바 學問上의 패러다임 革命(paradigm revolution)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f. [20] p. 282).

### Ⅲ. 比較經營學의 意義와 體系化 方向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전제로 할 때 比較經營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따라 體系化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比較經營學에는 각국의 經營學說의 比較研究와 各國의 企業經營實態의 比較研究의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양측면을 중심으로 體系化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의 經營學說은

저마다 각국의 企業經營實態를 설명·예측·제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체계로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實證理論으로서 성립되었다면 각국의 企業經營實態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暫定的으로는 광의의 比較經營學에는 각국의 經營學說을 다룬 협의의 比較經營學과 각국의 企業實態를 實證적으로 比較分析한 比較經營論(\*)으로 나누어 體系化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는 보다 엄밀히는 比較經營學說學이며 후자는 比較經營實態學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는 보다 一般性 내지 普遍性을 지향하는 것인데 대해 후자는 特殊性 내지 具體性을 지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의 연구의 蓄積·蒸溜·昇華에 의해 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經營學說을 비교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比較經營學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중심으로 體系化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는 經營學說이 實證的 基盤을 갖지 못하는 假說水準의 純粹理論인 경우에는 理論과 實態의 遊離가 이루어지므로 理論形成의 바탕이 되는 후자에 대한 研究, 즉 實態의 比較研究가 先行되어야만 하나 이를 위해서는 比較實態解明의 方向과 틀을 제공하는 經營學說의 비교연구가 先行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比較經營學은 먼저 相對性比較를 통해 各國經營學이 가지고 있는 特殊性 내지 文化特殊性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이므로 一次的으로는 各國經營學의 特殊性을 해명하는 方向으로 體系化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各國의 企業經營을 설명·예측·이해·제어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된 각국의 경영학설이 각국의 企業經營實態를 반영한 實證理論이라 한다면 마땅히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比較經營學의 研究의 效益을 學問적으로나 實際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比較經營學은 다음 단계로서 이러한 各國經營學의 特殊性을 超克하여 世界共通의 一般理論 내지 一般經營學의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各國經營學이 공통적으로 가진 一般性 내지 文化橫斷(貫流)의 特性 또는 交錯文化的 特性을 同一性比較에 의해 비교·연구한 다음 文化恒常性에 의해 설명되는 一般理論 내지 一般經營學을 수립하는 方向으로 體系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各國經營學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새로운 理論의 형성을 위해 批判的 研究를 하는 方向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比較經營學의 體系化 方向을 전제로 할 때 試論的인 比較經營學의 體系는 暫定的으로 다음과 같이 構想할 수가 있다.

## 1. 比較經營學 本質論

### (1) 比較經營學의 意義와 性格

(\*) 여기서 論은 學의 下位體系로 본다.

- (2) 比較經營學의 研究對象
- (3) 比較經營學의 內容과 體系
- 2. 比較研究方法論
  - (1) 比較研究方法의 意義와 性格
  - (2) 比較研究方法의 種類
  - (3) 比較研究의 理論前提와 比較의 方向
- 3. 相異性比較經營學
  - (1) 各國別 比較經營論
  - (2) 學說別 比較經營學
  - (3) 其他基準別 比較經營學(體制別 比較經營學 포함)
- 4. 同一性比較經營學
  - (1) 各國別 比較經營學
  - (2) 學說別 比較經營學
  - (3) 其他 基準別 比較經營學(體制別 比較經營學 포함)
- 5. 比較經營學의 展開方向

### 參 考 文 獻

- [1] 金元銖, 經營學原論, 全訂版, 1984.
- [2] 金元銖, 理論經營學, 1983.
- [3] 鄭守永, 新經營學原論, 第3全訂版, 1982.
- [4] 韓叢泳, 經營學總論, 1982.
- [5] 岩田龍子, “國際比較經營と 日本的經營”, 土屋守章, 森川英正編, 企業者活動の史的研  
究, 中川敬一郎先生還曆記念, 1981.
- [6] 大島國雄, 國際比較經營論, 1979.
- [7] 河野豊弘, “比較經營學の 概念と 組織と 意思決定の 比較 model”, 日本經營學會編, 經  
營國際化の 諸問題, 經營學論集 44, 1974.
- [8] 鈴木英壽, “比較經營經濟學の 課題 —經營經濟學に おける 學際性と 認識進歩—”, 日  
本經營學會編, 經營國際化の 諸問題, 經營學論集 44, 1974.
- [9] 竹村憲郎, “Comparative Management 序說”, 日本經營學會編, 經營國際化の 諸問題,

經營學論集 44, 1974.

- [10] 中川敬一郎, “經營史學における 國際比較と 國際關係”, 土屋守章, 森川英正編, 企業者活動の 史的 研究, 中川敬一郎先生還曆記念, 1981.
- [11] 中村瑞穂, “日本の經營論と 經營學の 方法”, 日本經營學會編, 日本經營學と 日本的經營, 經營學論集 49, 1979.
- [12] 松本讓, “日本經營學と 日本的 經營—比較經營論の 提唱を 中心に して—”, 日本經營學會編, 日本經營學と 日本的經營學, 日本經營學會編, 經營學論集 49, 1979, p. 54.
- [13] 村山元英, “日本の經營と 文化恒常性—海外移轉に よる 檢證”, 日本經營學會編, 日本經營學と 日本的經營, 經營學論集 49, 1979.
- [14] 村山元英, 國際經營比較論, 1975.
- [15] 林周二, “Marketingにおける 比較について”, 流通政策研究所, 流通政策, No. 4, 1982.
- [16] 馬場敬治, 經營學と 人間組織の 問題, 1954.
- [17] 藻利重隆, “日本の經營と 日本經營學”, 日本經營學會編, 經營學の 回顧と 展望, 經營學論集 47, 日本經營學會 50周年記念特集, 1977.
- [18] 藻利重隆, 經營學の 基礎, 新訂版, 1968.
- [19] 山城章 “日本經營學への 途”, P.R., 1958.
- [20] 山本安次郎, 經營學研究方法論, 1975.
- [21] 吉原英樹, “日本における 經營管理研究”, 日本經營學會編, 經營學の 回顧と 展望, 經營學論集 47, 1977.
- [22] 井康正二, 工藤・晃, 社會科學と 自然科學の 方法, 1977.
- [23] Boddewyn, J. “Compa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Prasad, S. B. (ed.), Manage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967.
- [24] Boddewyn, J., “The Compa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7, 1965.
- [25] Frankel, C. “Dewey, Joh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4, 1968.
- [26] Haire, M., E.E. Ghiselli & L.W. Porter, Managerial Thinking: An International Study, 1966.
- [27] Harbison, F. & Myers, C.A., Management in Industrial Analysis, 1959.
- [28] Kerr, C., et al.,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The Problems of Labor and



- Management", in *Economic Growth*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4.
- [29] Koontz, H., O'Donnel, C. & Wehrich, H., *Management*, 7th ed., 1980.
- [30] Koontz, H., "Making Sense of Management Theory," Koontz, H. (ed.), *Toward a Unified Theory of Management*, 1964.
- [31] Negandhi, A.R. & Prasad, S.B., *Comparative Management*, 1971.
- [32] Schollhammer, H., "Strategies in Comparative Management Theorizing," in Bodde-  
wyn, J. (ed.) *Comparative Management: Teaching, Training and Research*, Procee-  
dings of the Comparative Management Workshop, 1970.
- [33] Schollhammer, H., "Comparative Management Theory Jungle," *Academy of Manage-  
ment Journal*, 12.1. (Mar. 1969).